

지역 매 아리

완주 한마음 봉사회 발대식 개최

완주 한마음 봉사회(회장 소원섭)는 지난 7일 완주군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발대식을 하고 완주군을 위한 봉사활동에 들어갔다.

한마음 봉사회는 각자 개인사업 및 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소원섭 회장을 중심으로 봉사단을 만들어 지역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자원봉사센터에 문을 두드렸다.

봉사회원들은 지역의 여러 분야의 직장에 있는 만큼 각자의 재능도 다양하게 있으며, 그러한 재능을 살려서 전기 안전 점검, 마을 방역 지원, 어르신 돌보기 맞춤, 이미용, 마을 환경정화, 가정 수도 수리, 보일러 수리, 어르신 치매 타과 음악 교실 등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한 마을에 맞는 맞춤형 봉사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들은 후원회를 구성하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을 찾아 그 마음을 지어주는 어려운 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우와 어르신들 에게는 작은 정성 등의 후원활동도 하면서 후원자들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전달 해 나갈 계획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도시·농촌청년들

함께하는 인문학 캠프 성황

완주군은 최근 도시청년과 농촌청년 15명을 대상으로 인문학 캠프를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삼락캠프의 2회차인 이번 캠프는 인문학을 주제로 진행되어 도시청년들이 농촌을 경험하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갖도록 마련했다.

특히 이번 캠프는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저자인 고미숙 작가를 초빙하고 청년과 주민 50여명이 함께 참석하여 현 시대의 청년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완주군 정책설명, 핸드메이드 체험, 귀촌 청년들과의 만남, 지역해설사의 지역탐방 설명 등 완주군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로 진행되었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완주군에 대해서 이렇듯 들어왔을 뿐 아는 것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하여 완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귀촌한 선배 청년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알았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표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앞으로 도시청년들이 완주군에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원주=이종복 기자

'국가예산 4000억 시대' 총력

완주군, 전 직원

일제 중앙부처 출장 나서

완주군이 '국가예산 4000억 시대 개막'을 위해 전 직원 출장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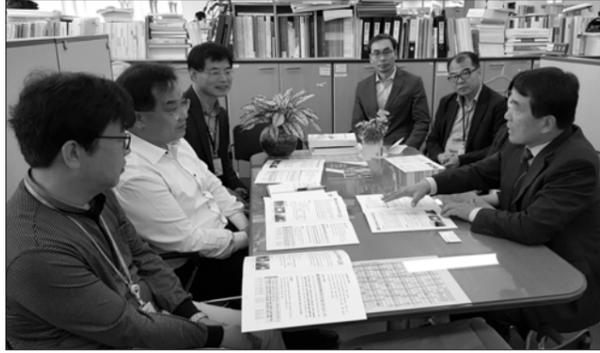
7일 완주군은 2020년 국가예산 4,000억 시대 개막과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15만 자족도시 완주'의 조기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일제 중앙부처 출장을 나서는 등 총력활동을 전개했다.

군은 이날 들어 오는 15일까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일제 출장의 날'로 정하고, 박성일 군수를 필두로 국·실·과·소 간부는 물론 담당 공무원이 총동원돼 중앙부처를 잇따라 방문하고 현안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박 군수는 기재부와 국토부, 농림부 등 세종시에 있는 관련부처를 직접 방문해 미래 먹거리 사업인 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등 남산북마(南山北馬) 행보를 이어갔다.

박 군수는 특히, 전주시와 연계한 수소경제 거점도시 지정을 위해 군이 보유한 상용차 중심 수소경제 인프라를 바탕으로 입체적인 설득에 나섰다.

또한 '15만 자족도시 정주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 사업인 △봉동 농



완주군은 오는 15일까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일제출장의 날'로 정하고, 전 직원이 일제 중앙부처 출장을 나서는 등 총력활동을 전개했다.

촌중심지 활성화사업(180억 원), △화산기초생활 거점 육성(40억 원), △삼례 도시재생 뉴딜사업(250억 원) 선정을 강하게 건의했다.

이 외에도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한 △호남고속도로(삼례IC~이서JCT) 확장 하반기 예타 시행 및 화산~운주(국도17호선) 시설개량 조기 착공도 적극 피력했다.

박 군수는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진두지휘하며, 농림부 차관보를 만나 완주군 농림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전폭적인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등 광복 행보를 이어갔다.

군은 일제출장과 함께 기재부 예산편성단계(매년 6~8월)에 중앙부처

향우 인맥과 전북도 및 정치권과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해 국가예산 활동상황 공유 및 미반영·과소 반영 중점사업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SOC 및 농림수산 분야 등의 정부예산 축소와 군특회계 지방이양에 따라 국가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오는 2025년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절대적이다"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면밀한 준비와, 발 빠른 대응 그리고 발로 뛰는 예산확보 노력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로컬푸드사업다각화' 본격

향토산업 운영위원회 개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7일 향토산업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면서 2019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금번 운영위원회에서는 1년차 사업 계획 승인사항 보고를 비롯하여 효율적인 수행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주체들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의결하였다.

로컬푸드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이라는 긍정적인 인식 확산으로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점점 그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 김제시에는 로컬푸드 사업 다각화를 기획·추진하게 되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019년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로컬푸드 사업 다각화 사업계획'을 응모, 최종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30억원을 추진하게 되었다.

판매에만 그쳤던 로컬푸드를 농가조직화, 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 세분화하여 집중 추진하며, 소비자에게는 문화장터, 식생활 교육 및 소비자 농촌체험 등 새롭고 다양한 방법론으로 다가가게 된다. 아울러 로컬푸드 물류센터 구축 및 유통기공센터 신축으로 시설기반을 갖춰 도시권 소비자에 공급을 확대할 예정으로 김제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철 농민기술센터 소장은 "김제 600여 중소농가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식품의 공급 확대, 지역자원을 연계한 체험상품 운영 등으로 김제만의 로컬푸드 매력을 어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교월동, 어버이날 맞이

영화상영 행사 가져

김제시 교월동(동장 정우근)은 어버이날을 맞아 7일 노인사회활동사업(구 노인일자리사업)참여 어르신 30분을 모시고 주민센터 2층에서 영화상영 행사를 가졌다. 이번 영화상영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교월동 거리환경개선에 애쓰신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수상한 그녀"의 영화관람을 통해 살아온 시간을 공유하고 옛시절 청춘을 돌아보는 등 유쾌한 시간이 되었다.

노인사회활동사업 참여 어르신들은 올해 1월부터 공공시설물 등 지역환경개선을 위해 활동·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행복한 어린이, 존중받는 어린이'

김제시, 제97주년 어린이날 기념 성황

김제시(박준배)는 제97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최근 1,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김제시 민문화체육공원 잔디광장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

"행복한 어린이, 존중받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뮤지컬 <캐츠>를 2회 공연하고 놀이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구성하는 등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라북도지사 표창으로 봉남지역아동센터 유혜인님이 아동복지유공자 표창을 응동초등학교 6학년 임장훈 어린이가 모범어린이 표창을 받았다.

김제시장 표창으로 아동복지 기여자에 대해 백상의료재단 가족사랑봉사단 박진만 이사장이, 모범어린이에 대해 만경초 김경미, 죽산초 윤수호, 종정초 강아영, 용지초 하수빈, 부용초 이희민, 벽량초 박애진, 황강초 유수현, 청하초 오희성, 성덕초 서주빈, 진봉초 최지현, 금구초 최소라, 봉남초 윤세중, 남양초 손은빈, 금산초 김용욱, 광활초 이재

현, 중앙초 김성현, 김제동초 김재영, 김제북초 오현두, 월촌초 강민수 어린이 19명이 표창을 받았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축사에서 "희망찬 오월 미래의 주역들이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어른들도 사랑스런 아이들이 구급할 없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는 날로 삼아야 하겠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가 진행된 잔디광장 앞마당에서는 김제시 드림스타트에서 진행하는 '에코백 만들기',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협센터와 함께하는 '현미경으로 보는 작은 생명', 김제농민회와 함께하는 '방울토마토 모듬 만들기', 김제소방서와 함께하는 '119 재난안전체험, 어린이 메이 크업(글리터), 격정인형 만들기, 어린이가 만들어 가는 반짝반짝 연구소 등 다양하고 신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모약회는 7일 김제시청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김제시 모약회,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논의

김제시 기관·사회 단체장 모임인 모약회(회장 박준배김제시장)는 7일 김제시청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김제시 현안에 관하여 논의 하였다.

각 단체 홍보시간에는 내고장학교 보내기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김제사랑장학재단의 장학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 안전 논의 시간에는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논의를 했다.

고민우 귀농귀촌 협의회장은 "귀농

인과 청년창업농의 경우 토지, 농기계 등 농업 자원이 부족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팜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회원들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김제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준배 김제시장과 회원들은 앞으로 기관·사회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김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